

人文論叢

83권 2호

2026년 5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공연예술에 나타난 초자연의 의미와 그 재현 방식

본 공동 연구는 고대 그리스극에서부터 현대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의 의미와 그 재현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공연예술에 나타난 초자연의 의미와 초자연적인 힘, 또는 존재의 재현 방식이다. 초자연이란 ‘자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때의 자연이란 인위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에 반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이 세상 자체, 그것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은 이 세계 너머의 것, 이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이라 알고 있는바,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바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연극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고, 이것이 디오니소스 신에 대한 제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연극의 원형은 종교적인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듯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그리스 비극에는 극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신들이 등장한다. 신들은 예언자가 전하는 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로 등장하여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자연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을 비추고 인간다움과 현실을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초자연은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현실에 대한 심층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도전하며 인간다움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포스트휴먼적 전환과도 공명한다. 예컨대 라그랑듀(Kevin Lagranduer)와 월레스(Jeff Wallace)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묘사한 전통적 서사를 재검토하며, 인간이 오랜 시간 비인간적 요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 또 동시대 SF 연극 또는 포스트휴먼 연극은 다양한 비인간 주제를 행위자로 설정하여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인간다움과 인간 외 존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의 재현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공연예술의 미학적 표현 연구와 맞닿아 있다. 테우스 엑스 마키나부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초자연적 존재를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은 극적 실험이며, 새로운 미학적 표현의 탐구이다.

이러한 기획 의도에 따라 집필된 4편의 논문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17세기 프랑스 연극을 거쳐 20세기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마리-콜테스, 그리고 21세기의 이동형 거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와 시대의 공연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 안에 구현된 초자연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내고 있다.

장영지의 글은 코르네유의 『황금 양털의 정복』과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를 신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가 인간 주체 중심으로 해석해 온 두 작품을 비인간 존재와 사물의 행위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낸다. 『황금 양털의 정복』에서는 황금 양털이라는 사물이 신, 인간, 기계 장치를 모여들게 하는 결절점으로 작용하며, 어떤 단일 주체도 혼자서는 사건을 성취할 수 없는 공-산(sympoiesis)의 관계망이 형성되는 양상을 밝혔다. 『메데이아』에서는 메데이아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횡단하는 혼종적 주체로 읽고, 그를 둘러싼 사물들이 파국을 공동 생산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메데이아가 태양신의 수레, 즉 기계 장치를 타고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을 인간과 기계의 혼종이 출현하는 순간으로 재해석하고,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라는 새로운 용

어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초자연이 인간의 바깥에서 인간을 비추는 거울만이 아니라, 인간과 뒤얹혀 새로운 주체를 함께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낸다.

신은영의 글은 17세기 중반 프랑스 혼합극의 흐름 속에서 몰리에르의 『프쉬케』를 중심으로 인간과 초자연의 경계가 어떻게 서사적으로 구현되고, 음악·춤·기계 장치가 이를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분석한다. 당시 혼합극은 프랑스 전통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형성되었고, 몰리에르는 음악과 춤을 극 서사와 긴밀히 결합시켜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였다. 『프쉬케』는 코르네유, 뫼리, 키노의 협업으로 제작된 대규모 스펙터클 극으로, 신들의 초자연적 능력과 인간적 감정을 동시에 다룬다. 작품에서 비너스는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존재로 그려지며, 어머니의 명령에 반하여 그 복수의 대상인 인간 프쉬케와 사랑에 빠지는 아무르의 ‘인간화된 드라마’로 전개된다.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과 초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대신 그 경계성을 두고 변증법적인 미학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쉬케의 ‘무감함’은 ‘비인간적’ 결점, 죄로 치부되며, 그녀가 인간적인 오만함, 호기심이란 음욕에 의한 시련 후 거듭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을 통해서이다. 막간극에 개입하는 기계 장치와 음악은 이러한 서사와 밀접하게 조응하는 가운데 『프쉬케』를 최고의 총체극으로 완성하게 된다.

유가빈의 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극작가 베르나르-마리 콜테스의 『사막으로의 귀환』을 유령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이다. 극 중 유령의 형상에 집중해 온 기존 연구를 넘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유령적인 것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유령적인 것’을 과거의 귀환이 현재의 시간과 질서에 균열을 내고, 살아 있는 자들의 삶과 공간을 사로잡아 조직하는 작용으로 정의한 뒤, 사후 존재로서의 유령과, 살아있으나 유령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들을 분류하고 각자가 어떤 유령성을 표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유령은 집과 계보, 상속의 질서를 지배하는 힘으

로, 마리 유령은 전통적 유령 형상과 성스러운 상징성을 전복하는 존재로, 마틸드와 흑인 공수부대원은 억압된 과거를 귀환시키고 닫힌 세계를 불확정적인 미래로 여는 유령적 존재로 드러난다. 이 글은 작품에서 문자 그대로의 유령보다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유령적인 것의 효과가 핵심적임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산희의 글은 신유물론 관점에서 이동형 거리극 <더 워크>와 <더 허즈>를 분석하고, 퍼펫을 행위성을 지닌 존재로 재개념화하는 시도를 통해 퍼펫극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다. 제인 베넷의 ‘배치’(assemblage)와 ‘사물-권력’(thing-power) 개념을 빌려, 난민과 야생 동물을 형상화한 퍼펫을 단순히 인간의 의도를 투사하는 수동적 매체가 아닌 고유한 생기를 지닌 ‘행위소’(actant)로 재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존 퍼펫극 연구가 가진 퍼펫과 퍼펫터어의 위계적 구도를 해체하고, 재료와 구조라는 물질성이 공연의 의미 형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업힘’의 양상을 규명한다. 또한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과 도시를 횡단하는 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여, 장소, 관객, 환경이라는 가변적 행위소들이 기존의 배치에 투입하여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의미를 창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글은 퍼펫이라는 물질의 행위성이 어떻게 타자화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위계를 교란하는 수행적 실천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새로운 공연 미학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4편의 연구는 공연예술에서 등장하는 ‘초자연’이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극의 신들처럼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건, 현대 퍼펫극의 주된 행위자인 퍼펫처럼 인간성이 부재하는 물질적 존재건 간에, 이러한 존재를 공연예술 속에 재현하는 작품들이 자연과 초자연, 혹은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경계성을 두고 변증법적인 미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데리다의 유령론, 현대의 포스트휴먼 이론, 신유물론까지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탐색한 본 기획 연구는 시공을 초월하여 공연에

술에서 구현되는 경계성의 미학을 탐구하는 데 유의미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은영

